

'90年代에 있어서의 韓國

本稿는 지난 9月18日 美國原子力學會 韓
國支部 제41차 월례기술회의에서 특별강연
한 내용이다. 21世紀委員會는 대통령 자문기
관으로서 2천년대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부문의 展望과 장기지침을 건의하여 왔
으며, 本稿를 통하여 21세기를 맞는 우리에
게 經濟·社會·政治 및 통일문제에 대한
유익한 시사를 제시하고 있다.



李 寬

〈21世紀委員會 委員長〉

I. 序 論

영국의 작가 서머셀·모음은 “과거를 알려고 하
는 것은 이롭지 않고, 미래를 안다는 것은 끔찍
한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본인도 컴퓨
터 인쇄기에서 사전에 결정된 우리의 미래가 찍
혀 나온다면 인생은 비참해 질 것이라는데 동감
합니다.

흔히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
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인이라는 근거보다는 어
떤 징후를 통해서 전망해 보는 경우가 있겠습
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케세라
세라”(월대로 되라)식의 태도로 방관만 할 수
없고,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하여 계획하고 건설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90년대는 도전과 응전의 시대입니다.
20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는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충격적이고 파란만장
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이제 급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세대가 희망하고 기대하
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내부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 및 국제관계문
제들이 건전한 기반 위에서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있습
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이지만 본인은 우리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선 성취해야 할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들을 먼저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안정의 달성과 균형되고 민주적
인 번영의 성취인 바, 여기에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복지가 강조되는 지속적인 균
형경제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적대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통일을 위
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열망을 충족시켜야 하겠
습니다.

급격한 기술우위시대로의 돌입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도시화 및 황폐화적 변화에 대처하
기 위하여 우리는 고대문화의 찬란한 유산을 계
승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자긍심을 심
어주고 국민정신을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적, 문화적 번영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세계 경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
한 통상조약 및 협정 그리고 환영받는 건전한

무역관행을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 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새로운 개발 그리고 질병퇴치 및 기근과 天災의 극복 등 국제적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전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류사회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는 우리의 관심을 국내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다 성숙된 자세로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사고를 넓혀나가야 할 일입니다.

II. '90年代에 있어서 世界經濟의 課題

1960년대에 인플레이 없는 안정적 번영을 누리던 우리는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80년대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의 여파에 시달리면서도 세계 경제속에서 활력넘치는 성장을 모색해 왔습니다.

미국은 레이건대통령 집권 8년동안에 최근의 기록으로 가장 장기간의 경제성장을 示顯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반면에는 지출초과라는 불균형도 나타났습니다. 더우기 장기간의 경제적 난국으로 시달려온 유럽은 오랜 기간의 노력끝에 1992년의 EC통합 성취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유럽 경제상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지속적으로 활발한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 노동임금 상승 등 무역관련 마찰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중남미의 경우는 여전히 부채의 누적과 정치적 불안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므로 '90년대 말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은 물론 1980년대에 일본통화의 외환시세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만큼 성공적인 경제안

정기반을 성취한 나라로서 경이적인 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이 모든 나라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서 교역대상국들, 특히 미국시장에 있어서의 무역역조라는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0년대의 세계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최대의 걸림돌인 제약요소 중 두가지를 풀어나가는데는 미국의 "이중적자"를 혼란없이 수렴하는 일과 경제계 성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여기서 1990년과 2000년간에 세계 경제 개발에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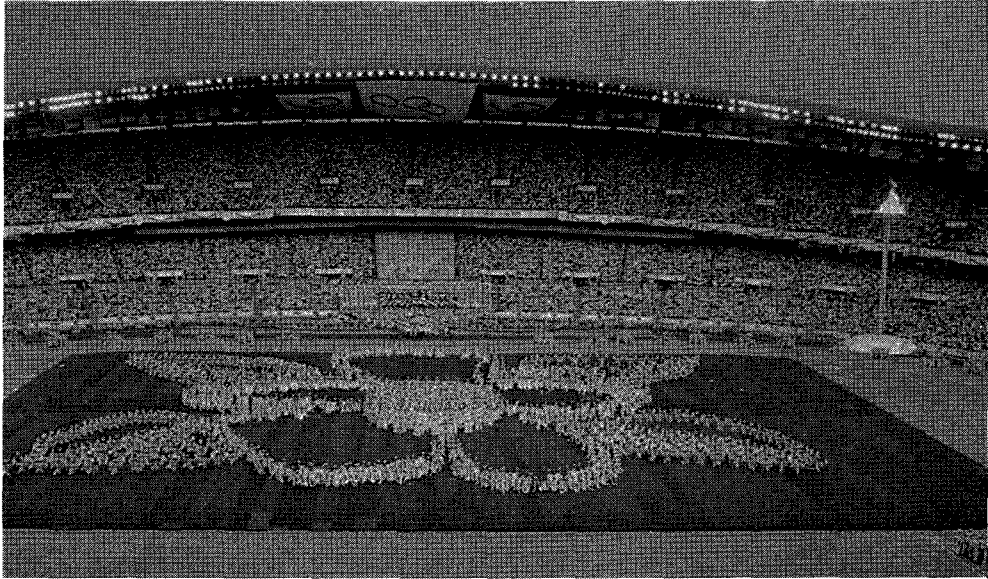
'80년대의 말에 우리는 경제적 구조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나타난 투자붐을 경험했는데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0년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생산성의 고도화를 예견하는 바 그것은 노동과 생산의 국제적 분업, 해외 투자의 상호 증가, 1992년의 EC통합 그리고 미국, 캐나다 통상협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술한 여러가지는 국가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번영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미·소간 데탕트 분위기의 고조와 과거 및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동구제국에서의 소위 혁명적 개혁을 통해서 세계적인 군비축소가 이루어져 군사비가 타 부분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안정적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다소 속단일지는 몰라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 "이중적자"를 합리적인 정상수준까지 줄이고 세계 경제계의 강국이라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리한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서의 日本 그리고 국제 기본화폐 국가로서의 미국이 2000년대의 세계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1992년에 실현될 EC통합 역시 중요한 요소로



서 EC가 자신의 태평양권 교역시장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세계 경제 전망을 고려한다면 EC통합에서 초래될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C제국의 인구는 3억2천만명인데, 그 GNP는 4조 2천억달러(표 2)로서 유럽공동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표1〉 EC 12개국의 인구(1987)

국 가	인 구 (명)
EC 12개국	323,060,000
미 국	243,850,000
일 본	122,200,000

〈표2〉 EC 12개국의 GNP(1987)

국 가	GNP (백만달러)
EC 12개국	US \$4,166,800
미 국	US \$4,461,000
일 본	US \$2,337,000

Ⅲ. '90年代에 있어서 韓國經濟展望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최근 급속한 경제개

발 촉진으로 인하여 세계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日本을 위시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와 중국 및 ASEAN 국가들의 공업화가 확대 되고 있습니다.

1981년까지는 과다한 해외자본이 한국의 산업에 투자됨으로써 한국은 채무국으로 전락하였으나, 유가하락과 일본 "엔"화의 급속한 강세에 힘입어 1986년을 기점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외채상황이 가능하게끔 되어 왔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면 한국은 '90년대 초에 채권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신흥공업국가중 싱가포르와 홍콩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양국의 선진국과의 차이는 거의 좁혀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속도는 어느 정도 완만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성장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투자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노사간의 분쟁이 극복되지 못한다면 이 전망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과 함께 중국 및 ASEAN 국가들이 기존의 양극체제로 되어있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구조를 多量平準化 하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

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총체적 무역구조는 제조업의 다양화에 따라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표3을 분석해 보면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권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2000년까지는 EC 및 북미의 경제규모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표3〉 서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규모(1987)

아시아 신흥공업국	US \$750(십억)
중 국	US \$840(십억)
ASEAN 국가	US \$430(십억)
호 주	US \$80(십억)
일 본	US \$4,050(십억)
기 타 국	US \$190(십억)
총 계	US \$6,340(십억)

IV. '90年代에 있어서 韓國의 當面課題

과학기술의 급진적 개발은 고도선진산업사회 구조에는 부응했지만, 반면에 환경오염과 같은 영향을 야기시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물론, '90년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효과적인 산업신장을 이룩하고, 행정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내재적인 문제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인구과밀현상과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2000년까지 인구는 5백만명이 증가할 것이고, 도로의 자동차는 현재보다 다섯배가 증가할 것이므로 인구, 문화 및 교육기능 그리고 산업의 균형있는 배치가 지방자치제도의 이행에 발맞추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量과 규모의 시대에서 質과 내용의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부의 불균형 분배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분쟁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또한 교육과 문화의 다양성 그리

〈표4〉 사회-경제 주요예상 지표

사회-경제 지표	단 위	1988	2001
인 구	1,000	41,867	47,200
1인당 GNP	달 러	4,870	16,870
노동인구	1,000	17,053	19,712
고용구조	%		
-농업, 임업 및어업		20.7	14.0
-광업 및 제조업		28.5	31.5
(제조업)		(27.7)	(31.0)
-서비스		50.8	54.5
수 출	\$100백만	596	2,360
수 입	\$100백만	482	2,260
자동차	1,000	2,035	11,827
국내 운송 수요	백만톤/년	385.2	949.7
국제 운송 수요	백만톤/년	199.0	434.9

고 공동사회활동에도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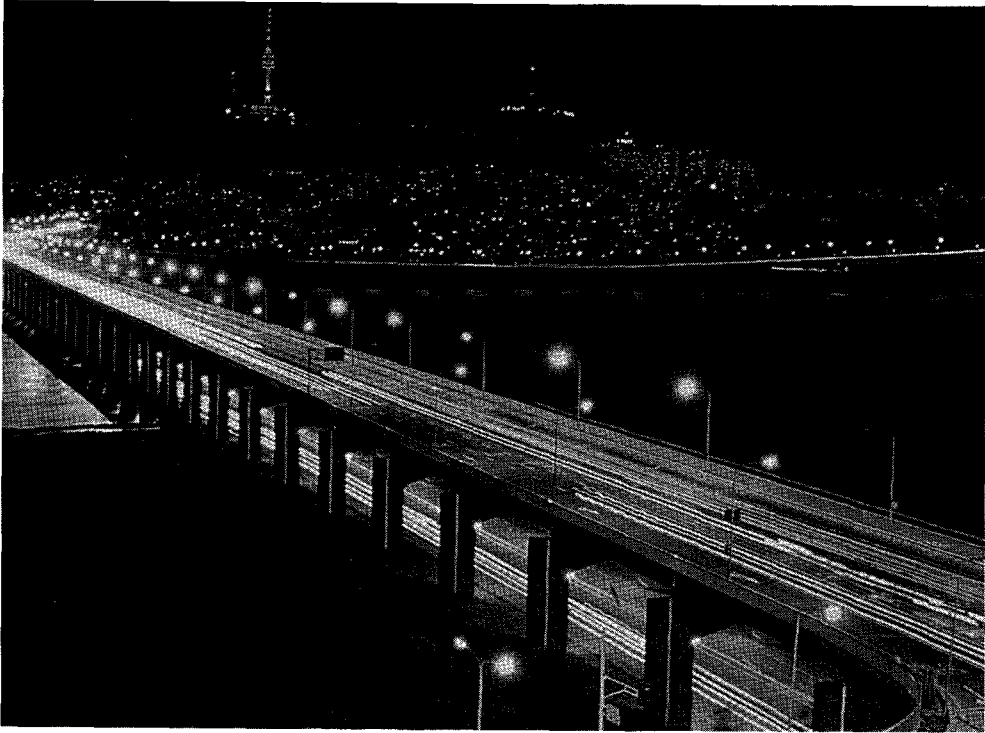
과거의 불균형 개발은 종교, 사회집단, 기업체들간 그리고 경제활동 상호간의 분쟁을 야기시켰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인구과대현상과 이로 인한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적, 경제적 쇠퇴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고 마침내 전국도가 깨끗하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9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과제입니다.

V. 東歐의 改革과 韓國統一의 展望

현재 동유럽에서는 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인은 이것이 文明질서에 역사적인 혁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세계질서를 지배해 왔지만, 이 역사적인 동구권에서의 개혁은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가지 典型的의 주의사상을 시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신사고의 창조라는 것의 첫단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자유와 민주주의가 평등과 복지와 같은 개념



이고 산업화는 인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계적 비전(Vision)은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에 장애가 되었던 教條주의와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동구권에서의 대개혁을 포함한 현행의 세계추세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단히 유익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한의 지원자인 중국의 작년 대한국 무역은 30억달러로서 비공식 수치이기는 하나 중국의 대북한 무역액의 여섯배가 됩니다.

소련은 현재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갖고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하고 있는 단계이며, 항공 및 해상항로의 연결도 곧 示顯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가 분단된후 한국전쟁을 치렀다는 취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봉건국가의 집합체로서 단일국가가 된지 백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독일과 비교할 때 한반도의 통일의지는 독일의 통일의지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성실히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남북양측의 내부적 정치정세의 성숙이 요청됩니다.

VI. 結 論

1990년대의 문턱에서 우리는 현안의 여러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우리 자신을 재충전해야 할 단계에 서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2000년대로 향한 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시대적 동서간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위하여 협력하고, 과학과 기술의 뒷받침으로 인류의 이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